

2면 >> **보도**
재출범한 사생회

5면 >> **기획**
제로 음식 열풍, 괜찮을까?

8면 >> **문화**
심리상담 예능의 명과 암

12면 >> **만남**
신수정 kt 부사장을 만나다

우리 학교 생활관, 호실 선택제 도입

2022년 2학기 호실선택 안내

2022년 하계방학부터는 정해진 티오와 사용 가능 호실 내에서 직접 호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 호실선택을 하지 않으면 임의로 배정되고, 이후 변경 불가능합니다.

1. 호실선택 기간: 7/26(화), 8/9(화)~112(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착순)

호실선택 일자	7/26(화)	8/9(화)	8/10(수)	8/11(목)	8/12(금)
생활관	일신관	국제학사	광고관	용지관	남제관

2. 호실선택 방법:

[아주대학교 포탈] > [Login] > [학사서비스] > [학생생활신청] > [생활관 입사신청] >

화면 위쪽 [호실선택] 탭 > [선택 가능 호실 목록] 중 선택하여 신청

▲ 생활관 호실 선택에 대한 공지사항

올해 하계방학부터 기존에 무작위로 부여되던 호실 배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원하는 호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호실 선택 제도가 도입됐다. 호실 선택 제도가 도입되면서 동반 입사 또한 제약없이 가능해졌다.

호실 선택은 지난 7월 26일 일신관을 시작으로 ▲ 광고관 ▲ 국제학사 ▲ 용지관 ▲ 남제관 순서로 진행됐고 오전 10시에 시작해 선착순으로 호실을 선택할 수 있었다. 정해진 기간에 호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임의로 배정돼 이후 변경이 불가능했다. 생활관 장효정 직원은 “학생마다 호실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 생활관에서 임의로 배정했을 때 불만과 호실 변경 요구가 많았다”며 “임의로 배정할 경우 개인의 호실 선호도를 일일이 반영할 수 없으므로 학생이 직접 호실을 선택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호실 선택 도입에 대해 학우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동우(경제·1) 학우는 “생활관에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 생활관 호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참신했다”며 “운동을 좋아해서 저층에 방이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호실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바람대로 저층에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지예(심리·1) 학우 또한 “선호도에 따라서 원하는 호실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고 전했다.

또한 호실 선택 도입으로 제한 없는 동반 입사가 가능해졌다. 매년 1학기에 광고관과 남제관만 4인이 모두 있을 때 동반 입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호실 선택제가 도입된 후에는 동반 입사를 하고 싶은 경우 학우끼리 같은 호실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동반 입사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 허윤지(경영·2) 학우는 “호실 선택 도입으로 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룸메이트를 할 수 있게 돼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만

족스럽다”고 말했다. 임주현(사회·1) 학우 또한 “1학기 때 함께 방을 쓰던 룸메이트들과 잘 맞아서 2학기 때도 함께 방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마침 호실 선택이 도입돼 같이 방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동반 입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다만 비교적 넓은 호실과 계단과 가까운 호실 그리고 저층을 희망하는 학우들이 많아 호실 선택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현진(행정·2) 학우는 “호실을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하루이고 선착순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놓치는 학우들이 있을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우들은 저층에 사람들이 몰려서 호실 선택 시 힘들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혼란스러웠던 호실 선택 도입 첫날

호실 선택 첫날이었던 지난 7월 26일에는 일신관 호실 선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학우들이 혼란을 겪었다.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던 호실 선택이 불가능했고 생활관 측은 전화한 일부 학생들에 한해 호실을 배정했다. 몇 분 후 생활관 측은 다음날인 7월 27일로 호실 선택 날짜를 변경했다. 이름을 요구한 학우는 “생활관에서 전화한 학우들에게 먼저 호실을 선택할 기회를 줌으로써 7월 27일에 호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직원은 장 직원은 “7월 26일 전산으로 학생이 신청하지 못하게 막아둔 이후에는 전화로 호실 배정을 해주지 않았다”며 “호실 선택 오류 이후에 생활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부디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민재 기자 minjae020301@ajou.ac.kr

이들 간의 집중 호우, 우리 학교 피해 상황은?



▲ 건물 내 누수에 대응하는 모습

지난달 8일과 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우리 학교 건물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남제관에 곰팡이가 피는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학교 대부분의 건물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허현진 시설팀장은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나 주로 창가 또는 외벽 면의 빗물 침투가 원인이었다”며 “침수나 축대 붕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명피해와 같이 중대한 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 팀장은 “현장을 확인해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누수 보수공사의 특성상 물이 완전히 마른 후에 작업이 가능한 곳이 있어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폭우 피해의 주원인은 건물의 노후화였다. 허 팀장은 “학교에는 노후된 시설물이 많아 수시로 보수를 하더라도 폭우 시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학 정보공시의 '2021 시설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우리 학교 47개 안전 점검 대상 건물 중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은 총 7개로 약 14.8%를 차지한다. 남제관에 거주하는 강승협(행정·3) 학우는 “남제관의 경우 노후화로 건물이 항상 습해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폭우 기간에 옷이나 이불 등에 곰팡이가 생겨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이틀간의 폭우로 1백93가구가 침수되고 서울대학교는 토사 유입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학교가 누수를 제외한 큰 피해가 없었던 배경엔 평소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가 있었다. 시설팀은 교내 배수관 및 배수로에 대한 수시 점검은 물론

여름철과 가을철에 정기 점검을 각 1회씩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 점검도 연 3회 실시한다. 또한 우리 학교 안전관리센터는 ‘대학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를 통해 유형별 재난 상황의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명확히 해 신속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예방부터 대응 그리고 수습 및 복구 단계의 전 과정을 구체화해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허 팀장은 “업무 분야별로 당직 근무를 편성해 야간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정민규 수습기자 minque7@ajou.ac.kr

사령

원에 의해 퇴사
강승협 (행정·3)
고은 (국문·2)
김세연 (정외·4)
심길호 (경영·2)

수습기자에 임명함
오준영 (금공·1)
임승재 (경영·2)
정민규 (사회·1)

정기자로 임명함
윤주선 (정외·3)

부편집장으로 임명함
김민좌 (정외·2)

이번호는 2학기 개강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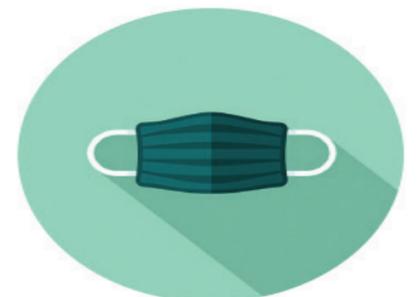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재출범한 사생회, 앞으로의 행보는?

올해 2학기부터 사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재출범 할 계획이다. 기존 존재했던 사생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이하 코로나 19) 감염 위험 문제로 비대면 수업방식을 운영하며 기숙사생의 수가 감소하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우리 학교 또한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생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사생회가 없던 올해 1학기에 입사한 오승민(금공·1) 학우는 “이번 사생회 비대위가 사생 학우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된다”고 기대를 보였다. 이에 총학생회 ‘담아’(이하 총학)에서는 생활관과 협의한 후 사생회 비대위를 선발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인원은 비대위원장 1명과 부비대위원장 1명 그리고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은 의과대학(이하 의대) 혹은 간호대학(이하 간호대)을 제외한 학우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위원장은 의대 또는 간호대 학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총학 측은 “기존에 의대와 간호대 학우들은 병원 별관 내 기숙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생회도 분리돼 있었다”며 “이번에 신축된 일신관도 단과대학별로 행정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생회 비대위원 선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선출된 사생회 비대위는 학년도의 입사비를 면제받는다. 따라서 그에 맞게 각종 행사 및 문화활동 기획과 불편 및 기타 의견 접수 그리고 보건위생 등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남제관에 거주했던 김민재(e-biz·1)학우는 “남

제관에 별레가 자주 나오는 것과 취식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불편했다”며 “불편사항을 학교 측에 직접 건의하기 부담스러웠는데 사생회 비대위가 생기면 불편사항을 건의하기 쉬울 것 같다”고 전했다. 생활관에 고명식 직원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0학년도부터 사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신관이 개관됐고 해당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입사생들의 생활 환경 및 복지 개선 등에 대한 최종 의견을 총학 측과 조율하고 사생회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가로 고 직원은 “사생회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기존 사생회가 사용했던 화홍관 사무실을 배정해 입사생들과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사생회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다. **오준영 수습기자 anan117@ajou.ac.kr**

우리 학교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받아, 14시간 간 접속 불안

지난달 9일 오전 11시 12분부터 우리 대학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학사서비스와 통합로그인 서비스의 접속 지연 및 끊김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 학교 정보시스템팀은 즉각 방화벽을 통해 대응했으나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홈페이지 접속 불안이 지속됐다. 이번에 발생한 공격은 디도스의 한 유형인 초기 연결 요청(SYN) 폭주 공격이다. 이로 인해 표적 서버 컴퓨터의 모든 포트가 압도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 정보시스템팀 신민철 직원은 “공격 발생 시점부터 담당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공격 원인 추적 후 관련 장비 엔지니어를 호출해

패치 및 보안 설정을 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학교 네트워크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같은 기관과 모니터링을 함께하고 있어 공격 발생 시 자동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신 직원은 “보안상 국가명은 밝힐 수 없지만 특정 국가의 불특정 다수 IP에서 우리 학교 서버로의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당시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이동민(사회·1) 학우는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불가능해 에브리타임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 직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2020년에 DDoS

방화벽을 추가 증설해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학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에 대해 신 직원은 “우리 학교 수강신청은 정정 시간(Peak Time) 기준 분당 5천 건 이상의 수강신청을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모두 대기해 수강신청 모니터링을 지원한다”고 전하며 수강신청 서버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수강신청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당해 수강신청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민규 수습기자 minque7@ajou.ac.kr**

조각뉴스

● **우리 학교 감사위원회, 2022년 분기별 회계감사 진행해**
우리 학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올해 상반기에 대한 '2022년 분기별 회계감사'를 마무리했다. 1분기 회계감사는 지난 5월에 진행됐으며 2분기 회계감사는 지난달에 진행됐다. 감사위가 진행하는 분기별 회계감사는 피 감사단위의 자산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감사위 회칙에 의해 ▲각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등의 자치기구가 피 감사단위가 된다. 감사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재정 감사에 관련된 ▲감사권 ▲소명요청권 ▲중재권 ▲징계권을 위임받는다. 1분기와 2분기 회계감사 보고서는 9월 중 감사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수정(금공·2) 감사위원장은 “감사위 회칙에 근거해 1분기와 2분기 회계감사를 진행했으며 3분기와 4분기 회계감사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협조해준 피 감사단위의 담당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투명한 회계감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위는 지난 5월 18일 감사설명회를 개최해 피 감사단위의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감사위원 세칙과 정기감사 일정을 설명하고 감사기준안을 공표한 바 있다. **윤주선 기자 dbswnjts9090@ajou.ac.kr**

●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선정**
우리 학교가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4개 분야에 지원해 모두 선정됐다. 우리 학교가 선정된 사업 분야는 ▲수소연료전지 혁신인재 양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특허청)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보건복지부) ▲반도체 전공트랙 사업(산업통상자원부)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 학교는 3년간 5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강민철 기획처장은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학과 및 관련 부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교육부와 관련 부서 주관으로 신산업 분야 등의 산업과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해당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윤주선 기자 dbswnjts9090@ajou.ac.kr**

● **개교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대상, '세계는 아주로, 아주는 미래로'**
지난 6월 27일 우리 학교의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개교 50년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50년의 비전을 담아내고자 진행됐다. 50주년 기념사업 실무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2주간 후보작을 신청받아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세계는 아주로, 아주는 미래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Ajou's way, Challenges to the Future(아주의 길, 미래를 향한 도전)'와 'Ajou, Beyond the past, Change the Future(아주, 과거를 넘어, 미래를 바꾸다)' 우수상은 'Ajou is the PATH, 아주대학교가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와 'The ideal world, AJOU can achieve it(우리가 상상한 세상, 아주에서 이루다)' 그리고 '창의적 젊은 지성,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선정됐다. **임승재 수습기자 brianlim1212@ajou.ac.kr**

공지와 다르게 진행된 '심리학개론' 수강신청

본 수강신청에서 심리학과 전공필수 과목이자 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대) 기초과목 중 하나인 심리학개론의 수강신청이 공지와 다르게 진행돼 논란이 있었다. 교무팀이 게시한 올해 2학기 학사편람 1편인 수강신청안내에 따르면 심리학개론은 심리학과 제1전공자와 복수전공자 그리고 부전공자만 학년별 수강신청 때 신청할 수 있다. 즉 지난달 8일부터 11일까지는 전공자만 수강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지와 다르게 비전공자도 학년별 수강신청 때 신청할 수 있었다. 김소은(사회·2) 학우는 “학년별 수강신청 당일 여석이 남아있어 혹은 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는데 수강신청이 가능해 놀랐다”고 말했다. 결국 전체 수강신청 날인 지난달 12일에 잔여 여석이 없었다. 전체 수강신청 날에 심리학개론을 신청하려던 사회대 학우들은 수강신청 계획

2022-2학기 학사편람 수강신청안내

학과(전공)	제외과목	수강번호	제한내용	비고
심리학과	심리학개론	K095	심리학과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만 신청 가능	전체 수강신청일에 수강제한 해제
		K096		

에 차질이 생겼다. 김지연(사회·2) 학우는 “학년별 수강신청 때 비전공자는 심리학개론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공지가 있어서 시도조차 안 했다”며 “졸업 전 기초과목을 수강해야 해서 수강신청 마지막 날에 심리학개론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석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유(정외·1) 학우 또한 “심리학개론 수강을 희망하는 학우들이 많다 보니 강의에 대한 학교의 지침이 중요한 수밖에 없다”며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모두 쏟아 듣는 소중한 강의들이기에 학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무팀 강경우 직원은 “학사편람에 따라서 학년별 수강신청 때 전공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수강 제한을 걸어야 했는데 사회대 교학팀에서 걸어드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교무팀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대 교학팀 이우진 직원은 “심리학개론 수강신청과 관련해 문의하는 학생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한 후 학생들의 피해를 덜고자 수강정정 기간 때 5개의 여석을 증원하고 4학년일 경우 수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남궁민재 기자 minjae020301@ajou.ac.kr**

수강신청,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달콤한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맞이해야만 하는 대학생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산은 수강신청이다. 개강의 연례행사라 할 수 있는 수강신청은 한 학기를 결정지을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더욱 학우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하지만 수강신청이 비단 학우들만의 일은 아니다. 수강신청을 총괄적으로 관여하고 안내하는 교무팀의 수업 담당자 강경우 과장과의 만남을 통해 수강신청 그 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 좌측에서 세번째

안녕하세요 교무팀 강경우 과장입니다
그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수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랜 시간 우리 학교에서 근무한만큼 우리 학교 수강신청의 역사와 사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수강신청은 학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과거 수강신청 과정에서 수강신청 서버 문제나 시스템 및 프로세스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2018년에는 디도스 공격을 방지하고자 수강신청 시간을 변경하고 2019년에는 중앙전산원 정보시스

템 팀의 협조로 수강신청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그는 서버 개편과 더불어 다양한 수강신청 관련 제도의 도입이 수강신청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교무팀은 2019년 2학기부터 예비수강신청 기간을 이용해 우선수강신청제도를 시행했다. 우선 수강신청 대상 과목이면서 예비수강신청 인원이 정원 내일 경우 본 수강신청 결과로 이관되면서 수강신청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 경쟁 과열을 잠재울 수 있었다” 교무팀은 지난해 2학기부터 수강신청 취소신청 지연 제도를 시행해 수강신청 매매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수강신청의 공정성이 증진된 것 같다”며 “수강신청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새로운 수강신청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총학생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을 고민하고 도입하려 한다”고 전했다.

중요한 것은 '소통'
이런 그에게 수강신청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는 어떤 업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 답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수강신청은 학과 사무실 및 교무팀과 학우 및 교수 그리고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으로 의사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우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수강신청 기간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재된 정보를 문의하는 경우 안내된 내용을 전화로 다시 설명하느라 다른 학우들이 문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며 “학우들이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지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수강신청, 학생보다 더 떨려요**
그는 수강신청 담당자라는 직책에 대해 잘하면 본전 못하면 뒤통수 맞는 자리라 칭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하신 않았는지 돌아보느라 수강신청 전날에는 쉬이 잠들지 못하기도 한다”며 고충을 드러냈다.

당연함을 향한 당연하지 않은 노력
치열한 수강신청의 경쟁 속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불안에 떠는 것은 비단 학우들만의 부담이 아니었다. 학우들이 수강신청을 걱정하고 준비하는 만큼 학교 측 또한 그에 상응하는 노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수강신청 담당자로서 학생들의 부담은 덜고 권리는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민하는 그의 모습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상 모든 것들 뒤에 항상 누군가의 노력이 자리함을 깨닫게 해준다. **이혜지 수습기자 ajouhye@ajou.ac.kr**

총동문회와 재학생을 연결하기 위한 공간, '아주랑'

제24대 총동문회의 중점사항 중 하나인 총동문회 홍보관 '아주랑'이 5월 19일에 진행된 개소식과 함께 개관했다.

우리 학교 캠퍼스프라자 1층에 위치한 '아주랑'은 올해 2월 건립 계획을 수립해 3월 11일부터 약 두달간 이정석(건축·90) 동문이 내부 공사를 맡아 진행했으며 4월 9일에 홍보관을 완공했다. '아주랑'은 '홍보관' 이름을 부각해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으며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우리 학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함께 대화와 만남의 장을 가지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홍보관 내의 우측 대형 TV에서는 동문 인터뷰와 총동문회 활동 영상 등이 상영되며 총동문회 연혁과 기부자 명단이 전시된다.

'아주랑'은 총동문회에 대한 연혁과 홍보뿐만 아니라 동문 기업의 제품 또한 전시하고 있다. 현재 임삼수(전자·84)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WOYC korea'에서 인쇄한 제품들이 전시돼 있으며 그 옆으로 한재관(경제·86)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비보존헬스케어'의 화장품이 전시돼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홍보 공간으로 대학 외인을 비롯한 굿즈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이를 통해 총동문회에서 동문 및 동문기업과 학교를 홍보할 수 있게 됐고 동문 및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이



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제공됨에 따라 총동문회로의 접근성 또한 좋아졌다.

제24대 총동문회 회장 최중권(경제·84) 동문은 "재학생들이 동문회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동문과의 접촉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총동문회 활동과

역사를 알리며 재학생과 연결할 방법이 홍보관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동문은 "그동안 동문회 기부자에 대한 발전기금과 예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홍보관에 게시해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주랑'을 실제로 알고 이용하는 학우나 일반인들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김민보(기계·3) 학우는 "총동문회 홍보관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동문은 홍보관이 열린 6개월간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학기 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총장방이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처럼 학우들에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치킨을 배부하는 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계획 중이라 밝혔다. 교외에 위치해 방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 학우는 홍보관이 교외에 위치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며 "교외에 있기 때문에 알아서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동문은 "총동문회 홍보관이 교내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동문이나 외부인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교외에 홍보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동문은 우리 학교에 온 것만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동문회와 학교가 노력 중이며 '아주랑'도 그 방법 중 하나라며 동문과 재학생을 위한 '아주랑'의 문은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당부했다.

김민화 기자 rlaalswhk12@ajou.ac.kr

우리 학교, LG전자 VS사업본부와 업무 협약 체결

우리 학교와 LG전자 VS사업본부가 모빌리티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지난달 10일 우리 학교 울곡관에서 진행됐으며 박창호 공과대학(이하 공대) 학장과 임종락 LG전자 VS연구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모빌리티 및 자동차 분야의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해 AI 융합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LG전자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력과 커리큘럼을 보유한 우리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학협력 과제를 제안하며 AI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과 연구 인력 그리고 교육 자원의 공동 활용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는 산학연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 학교는 신설된 첨단 분야 학과인 AI모빌리티공학과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연구센터가 주축을 이뤄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학장은 "본 협약을 통해 ▲공대 AI모빌리티공학과 우수 교수진 ▲우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여건에서의 현장실습 ▲첨단기자재 공동 운영 ▲LG전자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사회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우리 학교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AI모빌리티공학과를 새롭게 신설해 이번 달부터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며 "LG전자를 비

롯한 관련 분야 글로벌 기업들과의 긴밀한 산학연 협력으로 학생들의 역량 개발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진(전자·1) 학우는 협약 체결 소식에 대해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 중 하나인 LG전자와의 협약을 통해 학우들이 실무적인 교육 커리큘럼 아래 모빌리티 분야의 인제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러한 협력이 모빌리티 분야를 넘어 공과대학 전체로 활성화돼 더 많은 학우가 연구 지원이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LG전자 VS사업본부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와 지능형 운전 그리고 친환경 차량 부품 등의 개발을 맡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또한 LG전자는 정부의 미래형 자동차 인력 양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혜지 수습기자 ajouhye@ajou.ac.kr

Tip. VS(Vehicle component Solutions): 차량 전자 개발부를 의미한다.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차량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인간친화적 기능을 칭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통합시스템을 의미한다.

두 달간 폐쇄된 동아리실, 쾌적하게 재단장한 학생회관



지난 7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구학생회관과 신학생회관의 냉난방 설비 개선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 진행 기간 중인 11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동아리실의 출입이 제한됐다. 또한 공사 마무리 일인 지난 달 31일까지는 동아리실의 출입은 가능했으나 구학생회관과 신학생회관의 자유로운 방방이 불가능했다.

이번 공사는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각 동아리실마다 냉난방기의 유무가 상이했고 이로 인해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냉난방이 부실한 호실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가 동아리실의 냉난방 설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학생지원팀과 수차례 긴밀한 논의한 끝에 공사가 진행됐다. 학생지원팀 정우준 직원은 "그간 비교과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생 자치 공간에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그간 학생들의 불편함이 컸을 것이다"며 공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총학생회장 김형우(물

문·4) 학우는 "이번 공사를 통해 냉난방시설을 일원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공사는 이상 없이 완료됐고 학생회관 모든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사 기간 내 학생들로부터의 불편 사항 또한 접수되지 않았다. 시설팀 한철민 직원은 "이번 공사를 통해 실내 이용자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준(화학·3) 학우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될 앞으로의 동아리 활동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장성현(행정·2) 학우는 "이번 공사가 학생 요구를 반영한 시설 개선의 시발점으로 다른 부분의 편의도 증대될 것 같다"는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냉난방 설비 공사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진행됐다.

이자민 기자 jasmineljm@ajou.ac.kr

자존심이 걸린 싸움, 우리 학교 팔씨름동아리 더블에이(AA)를 만나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동아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아주대학교 팔씨름 동아리 회장인 이진우(금공·2)다. 동아리의 이름은 더블에이(AA)로 부회장이 최호연(수학·2) 학우와 함께 창설했다. 팔씨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팔씨름 실력은 전원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 부원도 있고 저 또한 각종 팔씨름 대회에서 수상 경험이 있다.

Q 동아리명을 더블에이(AA)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와 동아리를 창설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많은 고민 끝에 우리 학교 이름과 팔씨름을 합친 Ajou-Armwrestling을 구상했고 이를 줄여서 더블에이(AA)로 정했다. 팔씨름은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 이길 수 있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기술도 배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스포츠라는 것을 우리 학우들에게 알리고 싶어 창설했다.

Q 팔씨름이 어떤 스포츠인지와 현재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팔씨름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상대방의 손등이 바닥에 닿도록 자기의 안쪽으로 힘을 써서 넘어뜨리는 쪽이 이기는 스포츠다. 팔씨름 기술에는 탐몰과 훅 그리고 프레스라는 기술이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을 사용하면 힘이 차이를 극복하고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팔씨름에는 많은 세계대회와 국내대회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노비스 ▲세미프로 ▲아마추어 ▲프로 ▲하비 수준이 각각 있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1년에 총 4회 치러진다. 또한 카프(KAF)라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의 모의고사급 평가전도 개최된다. 이 대회들을 통해 선수들은 한국 공식 랭킹에 도전할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떤 부분의 실력에 맞는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저희 동아리는 올해 10월 1일에 예정된 제25회 팔씨름 국

가대표 선발전에 지원자를 받아 함께 출전할 계획이다.

Q 더블에이(AA)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A 더블에이(AA)는 1달에 한 번씩 수원특례시 망포동에 위치한 백성열 팔씨름 체육관에서 활동한다. 백성열 관장은 우리나라 통합 랭킹 1위를 8년간 유지한 분이다. 부원들의 팔씨름 훈련을 직접 도와주신다.

Q 동아리 인원수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A 동아리 부원은 1학기 기준 23명이며 남성 20명 여성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총

무 박근형(미디어·1) 학우 이외 나머지 일반 부원들로 구성돼 있다.

Q 동아리를 이끌며 특별히 좋았던 기억이나 활동이 있었나?

A 6월 초에 진행했던 동아리 축제 '단밤'에서 부스를 운영했던 것이 가장 인상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부원들과 팔씨름을 해서 이기기거나 회장과 부회장에게 3초를 버틸 시 상품을 증정했다. 총 2백36명의 학우들이 저희 부스를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학교 학우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잊지 못할 기억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A 2학기부터는 새 부원을 모집과 더불어 1주에 1회 우리 학교 내에서 부원들끼리 자유롭게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번개모임을 열 계획이다. 우리 학교 내에서 팔씨름 대회를 직접 주관해 개최하고 팔씨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를 구상 중이다.

Q 마지막으로 팔씨름 동아리 회장님으로서 학우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A 어느 동아리보다 부원들 간 유대감이 깊고 열정적이라 자부할 수 있다. 팔씨름이나 힘에 관해 흥미가 있는 학우들의 문의로 언제든지 환영이다. 앞으로도 동아리를 열정적으로 이끌며 최선을 다 하겠다.

오준영 수습기자 anan117@ajou.ac.kr

어린이가 되는 질병 알츠하이머병, 치료방법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뇌종양에 걸린 칠순 노인인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오일남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드라마 내부에서 오일남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바지에 오줌을 싸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며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는 연기지만 실제로 다수의 노인은 이러한 알츠하이머 질환을 겪고 있으며 영화에 나온 장면들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대부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들은 나아지길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사와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답을 찾고자 한다.



알츠하이머는 어떤 병인가?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맞물려 '치매' 환자는 매년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 관심 질병통계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38만 6천6백7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9년에는 55만 1천8백45명이 치매로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알츠하이머다.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을 정도의 심각한 지적기능의 상실을 가져오는 치매(dementia)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즉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병으로 아직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약물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병은 독일의 의사였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Alois Alzheimer)가 1906년에 처음 인지 저하가 있다 가 사망한 여성의 뇌 부검 소견에서 '아밀로이드 반'과 '신경섬유 매듭'이라는 특징적인 병리 소견을 알아낸 후 알츠하이머병이라 명명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발견 당시 알츠하이머 환자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나 오늘날 65세 이상의 10퍼센트 그리고 85세 이상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노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치매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됐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아밀로이드 가설과 타우 가설 그리고 염증적 가설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학계에서는 유해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나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 축적돼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원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상인의 경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소량 만들어지고 이후 분해돼 실처럼 풀린 형태로 뇌척수액에 녹아 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과다하게 생성돼 분해되지 않고 뇌세포 주변에 쌓이면서 플라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아밀로이드의 침적은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내지 15년 전부터 시작된다. 이로 인해 생긴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뇌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전달 시스템인 시냅스를 교란시키고 파괴해 치매를 유발한다.

또 다른 원인으로 뇌 신경세포에서 발견되는 타우 단백질도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 질환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상적인 타우는 뉴런의 구조 및 안정성 유지와 세포 내 영양분 운반 등에 도움을 주지만 비정상적인 형태로 접하게 될 경우 끈끈하고 잘 분해되지 않는 성질로 변하면서 뉴런 안에 '신경 섬유 다발(neurofibrillary tangle)'을 형성하고 뉴런의 기능을 교란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 변형된 타우는 한 뉴런에서 인접한 다른 뉴런으로 퍼져나간다. 일련의 과정이 반복돼 뇌 조직에 넓게 확산되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질환이 발생한다.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을 제거해 치료하려는 무수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료방법

현재까지의 알츠하이머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 치료와 예방만이 최선이다.

최근까지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는 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원인물질로 보고 이를 표적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항체치료제 등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한 후에도 종종 치매가 지속되거나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해도 치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발병 기전이 여전히 불명확해 치료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는 알츠하이머를 완치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치료는 없는 상태이고 연방 식품 의약청(FDA)가 승인한 네 가지 약 ▲타크린(tacrine: Cognex®) ▲도네페질(donepezil hydrochloride: Aricept®)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Exelon®) ▲갈란타민(galantamine: Reminyl®)만이 이 병에 관련된 증상을 완화 시키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비교적 다양한 원인이 나왔는데도 치료 방법이 없는 이유는 근본적 원인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최상돈(생명) 교수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는 근본적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계 질환이라 손상된 조직 재생이 어렵고 그 원인에 타고난 유전적인 소인도 있어 치료에 한계가 있다"며 많은 원인이 제시됐지만 그것이 원인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한 연구와 성과는 현재진행형이다. 최 교수 연구팀은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화합물을 발굴했다. 이 연구는 우리 학교 김욱(응화생) 교수와 김문석(응화생) 교수 그리고 최 교수가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설립한 희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사 에스엔케이테라퓨틱스 및 환인 제약 공동 연구팀이 참여했으며 위 연구에 대한 논문은 미국화학학회에서 발행하는 'ACS 케미칼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인공지능 분자 역학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진행된 이번 연구는 In-Silico-Screening 기법을 사용해 체내외의 해로운 물질을 인식하는 단백질인 NLRP3라는 물질에 대응하는 물질을 여러 개 찾아 기계학습으로 공통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나열해 판별한 화합물을 직접 구매해 실험을 진행하고 이 중 효과가 있는 물질의 특성을 분석해 신물질의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NLRP3 같은 물질이 포함된 단백질 덩어리인 인플라마솜이 체내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데 NLRP3에 신물질이 결합하면 인플라마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 염증 반응이 완화되는 것이다. 최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은 염증을 통한 조직 손상이기에 인플라마솜이라는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 복합체의 기능을 제어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번 결과가 염증성 질환이라는 특성이 있는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또한 최근 터진 알츠하이머 논문 조작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일종인 '베타 아밀로이드 52(Aβ•52)'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한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팀의 2006년 논문 중 해당 단백질을 검출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하지만 최 교수에 따르면 이 논문 외에도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혹은 결과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있어 전체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연구가 잘못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의학계에서도 큰 과제로 남아있고 아직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하지만 계속된 연구는 결국 유의미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최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가능성에 대해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다만 그 시기는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를 극복하기 위한 의사와 연구자들의 노력이 멈추지 않는 한 알츠하이머는 정복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알츠하이머가 불치병이 아닌 금세 치료될 수 있는 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민좌 기자 rlaalswhk12@ajou.ac.kr

TIP. In-Silico-Screening은 컴퓨터를 이용해 화합물 합성 등의 모의실험을 하는 기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아주대, AUT의 학생들을 만나다

타슈켄트 아주대학교(이하 AUT)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본교를 방문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열흘간 AUT의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여름캠프가 진행됐다. 한국에 방문한 20명의 AUT 학생은 수원과 서울 그리고 천안 등을 방문하며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본보는 캠프에 참여한 두 명의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해 AUT 생활과 여름 캠프 참가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Salge Islyamova이다. 19살이고 2학기 기준 건축학과 3학년 재학 예정이다.

Bezkod Astanov이다. 19살이고 2학기 기준 건설시스템공학과 2학년 재학 예정이다.

Q AUT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AUT는 작은 학교지만 좋은 교수님들께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타슈켄트에 있는 작은 아주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학교 지원자 경쟁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비록 작은 학교지만 점차 커질 것이고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학교의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Q 많은 한국의 교수들이 그곳으로 파견 갔다는데 사실인가?

A 맞다. 한국에 와서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을 만나기도 했다. 교수님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만족한다. 교수님들이 세세히 설명해주는 강의 방식이 참 마음에 들고 건축학과의 경우 프로젝트 수업이 많은데 아주 만족한다. 건설시스템공학과도 다양한 분야를 다룬 수업과 실습이 있어 아주 흥미롭다.



Q AUT 생활엔 만족하는가?

A 공부하는 과정과 교수님 그리고 동기들과 지내는 시간 모두 맘에 든다. 공강 시간에 소풍을 즐기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과 체육활동을 하기도 한다. 도서관의 양질의 자료들은 깊이 있는 학습에 적합하다. 공부와 여가 모두 즐기기에 적합한 AUT 생활에 아주 만족한다.

Q 한국에 와서 경험한 이번 여름 캠프는 어땠나?

A 여름 캠프를 통해 아주대가 위치한 수원과 한국이라는 국가가 참 좋아졌다. 우리는 많은 장소에 다녀왔고 여러 체험을 했다. 특히 한국 문화를 체험한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한복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한지를 활용해 인형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 음식도 모두 맛있었다. 비빔밥과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고 직접 만들어 먹었던 김밥 또한 훌륭했다. 한국의 많은 멋진 건물들을 본 것도 기억에 남는데 특히 수원 팔고

갤러리아의 건물이 참 멋있었다.

Q AUT에서 본교의 인지도는 어떨까? 그리고 본교와의 교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A 사실 아주대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찾아보면 알아볼 순 있지만 아직은 다들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으로의 교환 프로그램은 이번 여름 캠프를 기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3명의 학생이 한국으로 교환 파견될 예정이다. 앞으로 그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들었다. 나중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

두 학생 모두 AUT에 진학하게 된 건 우연한 계기라고 말했다. 우연히 만나게 된 AUT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즐거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먼 나라 한국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 두 학생은 특히 이번 여름 캠프 중 우리 학교에서의 많은 경험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비록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두 학교지만 같은 아주대학교로서 서로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교류팀 김승윤 직원은 "교환학생 혹은 캠프 형태로 AUT와의 국제적 교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여름 캠프가 성공적이었던 만큼 교류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UT는 우리 학교 본교로 작년 8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건립됐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제공한 대학 부지에 본교의 교육 시스템을 적용해 한국의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AUT의 졸업생은 졸업 후 우리 학교 학위를 취득한다. 현재 건설시스템공학과와 건축학과 그리고 전자공학과 세 개의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총 83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김민좌 기자 rlaalswhk12@ajou.ac.kr
이자민 기자 jasmneljm@ajou.ac.kr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제로 음식 열풍, 물처럼 마셔도 될까?

“제로치킨과 제로떡볶이 그리고 제로햄버거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은 제로시대. 온갖 음식군에서 설탕과 칼로리를 뺀 제로 제품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제로 버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탕 또는 칼로리가 없는 제로 음식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콜라 정도에 불과했다. 콜라가 아닌 대다수 제로 제품들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거나 소규모 웰빙 가게에서 비싸게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해 펩시 제로를 시작으로 대기업이 제로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기 시작하며 제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업계추산에 따르면 2019년 4백52억 원 규모였던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은 2020년 7백86억 원으로 성장했고 지난해 2천1백89억 원까지 커지며 폭발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롯데는 싸이와 아이유 같은 스타들을 내세우며 제로 제품에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롯데의 탄산음료사업 매출은 1분기와 비교해 22.6% 상승한 2천2백70억 원을 기록했다.

제로 제품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MZ세대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연관 있다. 탄산음료의 최대소비층은 MZ세대다. 2019년 기준 전체 탄산음료 구매 비율에서 20대 27% 30대 25% 40대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MZ세대 사이에서 건강 관리와 신체 운동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이하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건강관리 시장은 2020년 2백14조 원에서 지난해 2백53조 원으로 급격히 커졌다. 지난해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MZ세대 72%는 신체 건강 관리를 자기 개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건강 관리가 당연시된 상황에서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가 트렌드로 떠올랐다. 헬시 플래저는 건강 관리를 위해 무작정 강도 높은 운동과 식단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며 신체를 관리하는 걸 의미한다. 제로 음식은 맛은 기존 음료와 비슷하면서 건강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 변준영(21)씨는 “칼로리와 설탕에 대한 부담이 없어 햄버거 세트 메뉴를 시킬 때도 제로 음료로 바꿔 주문하는 등 평소 제로 음료를 즐겨 마신다”고 말했다.

제로 음식이 활발히 출시되는 가운데 설탕세 도입은 제로 음료 출시를 촉진시킬 수 있다. 설탕세는 당류가 첨가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소비를 줄여 여러 질병이 발생하는 걸 막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법이다. 현 시점에서 전세계 42개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설탕세 도입을 추진했었다. 지난해 3월 강병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이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당 함량에 따라 기업에 음료 1백L당 최대 2만8천 원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정책 실효성 여부에 찬반이 갈리며 입법까지 가진 않았지만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제로 음식은 설탕 없이 어떻게 단맛을 낼 수 있을까. 기업들은 음식에 설탕을 넣지 않는 대신 다양한 종류의 감미료를 첨가한다. 첨부되는 감미료의 종류는 음식마다 다르다. 주로 사용되는 감미료는 수크랄로스(스위트너)와 아세설팜칼륨이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로 음식은 대다수 두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다. 수크랄로스는 설탕 대비 6백 배 강한 단맛을 가진 감미료다. 현재까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연구와 유해하지 않다는 연구가 양립하고 있다. 아세설팜칼륨은 설탕보다 2백배 달콤한 감미료다. FDA에 의해 안전성이 승인된 감미료지만 수크랄로스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유해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 외에도 제로 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감미료는 ▲스테비아 ▲아스파탐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등이 있다. 모두 두 감미료처럼 설탕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단맛을 가지고 영양이 없으며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위 감미료들과 다르게 섭취시 혈당을 증가시키며 설탕과 흡수율이 크게 다르지 않는 감미료도 존재한다. ‘말티톨’이 대표적이다. 칼로리와 당 흡수율이 0에 수렴하는 다른 감미료들과 다르게 말티톨은 1g당 2.1kcal이 존재하며 설탕 대비 60% 혈당을 상승시킨다. 다이어트를 위해 대체당 식품을 먹거나 당뇨 환자라면 말티톨이 들어간 제로 음식은 피해야 한다. 음료 제품군엔 말티톨을 사용해 만든 제로 음식이 없지만 과자나 초콜릿 등 제로 음식엔 말티톨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영양성분표를 보고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

특히 롯데가 출시한 ‘ZERO 디저트 브랜드’ 제품군 6종은 모두 말티톨이 포함돼 있다. 또한 탄수화물 수치도 높기 때문에 섭취시 혈당이 상승하며 칼로리도 꽤 포함돼 있다. 당뇨를 앓고 있는 A씨는 “제로라는 말에 안심하고 과자를 먹었는데 혈당이 크게 올라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제로 제품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기 위해 실제 1형 당뇨 환자에게 제로 제품을 먹인 후 혈당 수치의 변화를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지속성 인슐린을 맞은 상태로 끼니를 먹은 후 2시간 이후 제품군들을 섭취했으며 초속성 인슐린은 맞지 않고 측정된 혈당이다. 식전과 식후 1시간 그리고 식후 2시간의 혈당을 측정했다.

▲제로몽벨 ▲제로젤리 ▲제로콜라 ▲제로쿠키를 섭취하기 전 후 결과를 측정했다. 이 중 제로콜라를 제외한 음식들은 모두 말티톨이 포함돼 있다. 실험결과 제로몽벨을 먹기 전 혈당은 121이었지만 섭취 1시간 후 128 섭취 2시간 후 158로 혈당이 상승했다. 제로젤리와 제로쿠키는 혈당이 더 크게 상승했다. 제로젤리를 먹기 전 혈당은 126이었지만 섭취 1시간 후 혈당은 181로 상승했고 2시간 후엔 196까지 올랐다.

주요 제로 음료 목록

	출시 회사	출시일 *	대체감미료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2006.4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나랑드사이다	동아오스카	2010.7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펩시 제로	롯데	2021.1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칠성사이다 제로	롯데	2021.2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알룰로스
스프라이트 제로	코카콜라	2021.3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보성홍차 아이스티 제로	동원	2021.7	수크랄로스
탐스 제로	롯데	2022.4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헬치 제로	농심	2022.6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알룰로스
몬스터에너지 제로	코카콜라	2022.6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 단종된 적 있는 제품은 재출시일 기준

1형 당뇨 환자의 제로 식품 섭취 전후 혈당 변화

제품명 (탄수, 당알클)	식전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
제로 쿠키 (25 / 7.5)	106	124	172
제로 몽벨 (21 / 9)	121	128	158
제로 젤리 (40 / 30)	126	181	196
제로 콜라 (0 / 0)	167	155	145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식후 혈당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로쿠키를 먹기 전 106이었던 혈당은 1시간 후 124 2시간 후 172로 상승했다. 반면 말티톨이 없던 제로콜라는 섭취 전 167에서 1시간 후 155 2시간 후 145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속성 인슐린을 맞은 당뇨병 환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상인처럼 조금씩 혈당이 떨어진다. 제로콜라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말티톨처럼 혈당을 높이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로음료들은 마음껏 먹어도 될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당뇨병협회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바탕으로 제로콜라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당뇨병협회로부터 제로콜라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수라는 입장문을 내왔다. 제로콜라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포만감을 주기에 당뇨와 상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존 입장을 변경해 당뇨와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철회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설탕 대신 열량이 없는 인공감미료를 사용했을 때 혈당 개선이나 체중감량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당뇨병학회 지침 내용이 변경돼 새로운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1 당뇨병 진료지침’에 따르면 총 열량이나 탄수화물 섭취에 제한이 없는 인공감미료 사용의 이득은 근거가 부족하다. 제로콜라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가할 수 있으며 제로콜라 속 포함된 카라멜 색소는 일반 콜라와 마찬가지로 몸에 좋지 못하다.

제로음식을 먹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심평원은 당류 섭취를 줄이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로칼로리 음료를 활용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제로음식 속 감미료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반 음료와 비교하면 건강에는 이로운 만큼 적당히 섭취한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적당히’ 먹으며 건강을 지키자.

손종욱 기자 tou0325@ajou.ac.kr

화살촉

다이어터들의 제로 음료, 당뇨 환자들에겐 희망

오늘날 수천만의 다이어터들은 제로 음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단백질을 늘리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당 없이 맛을 내는 제로 음료의 수요가 상승했다. 다이어트 트렌드의 변화는 수많은 종류의 제로 음료와 음식들을 만들어냈다. 제로 음료 외에도 탄수화물과 당을 최소화한 여러 음식들이 개발되고 있다.

제로 음식들이 출시되면서 당뇨 환자들은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보고 있다. 당뇨 환자들은 체내 체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탄수화물과 당 섭취를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이는 키토제닉 다이어터들의 식습관과 겹친다. 결과적으로 다이어터들을 위한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당뇨 환자들의 식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 환자들은 제로 음료나

키토제닉 음식을 먹으려면 해외 직구를 하거나 소규모로 판매되는 비싼 당뇨식을 구매해야 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제로 음료는 코카콜라 제로와 나랑드사이다 2종이 전부였다. 국내 대기업들이 줄지어 제품을 내보내며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제로 음료나 음식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제로 음료를 출시하지 않았던 걸까?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을 뿐이다. 칠성사이다 제로와 펩시 제로 모두 10년 전 출시됐지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며 단종됐다. 최근 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고 나서야 다시 출시될 수 있었다.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에 움직인다. 수요가 큰 사업을 위주로 움직이며 수요가 작아 크게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사업을 정리한다. 당뇨 환자들이 제로 음료를 섭취

한다고 해도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로 음료 출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다시 제로칼로리 음료 수요가 폭증하면서 다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기업은 이유를 추구하는 단체다.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제품을 단종한 건 비판받을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언제나 규모의 경제에 밀려 조명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제로음료를 마시는 당뇨인은 예시일 뿐이다. PKU(페닐케톤뇨증) 환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선천적으로 아미노산 대사에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위해 발벗고 나선 기업들이 있다. CJ는 PKU 환자를 위해 단백질 함량을 줄인 햇반 저단백 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국내 수요가 2백 명에 불과해 판매할수록 적자를 보는 제품이지만 햇반은 현재

까지도 저단백밥을 판매하고 있다. 매일유업도 몸에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위한 특수 분유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 역시 제조과정에 많은 수고가 필요해 판매할수록 손실을 보는 제품이다.

제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앙받던 시대는 끝났다. ESG 경영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오늘날 소비자들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통해 기업을 파악하고 있다. 기업이 이유를 추구하는 건 당연한 행동이지만 이에 앞서 사회에 공헌하는 행동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유를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기업들이 사각지대를 찾아나서며 소수를 위한 제품을 출시하길 바란다.

손종욱 기자 tou0325@ajou.ac.kr

유례없는 폭우, 수원특례시의 피해와 대처는?

지난달 8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우리 학교가 위치한 수원 특례시(이하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가 큰 피해를 보았다. 이번에 내린 폭우는 많은 지역에서 시간당 1백mm를 웃도는 수준으로 기상청이 제시한 호우경보 발효 기준인 3시간 90mm 또는 12시간 1백50mm를 3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수원시에도 3일 동안 총 3백73.9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1백93가구가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광고 저수지가 위치한 수원시 장안구는 시내 1백3곳과 상가 6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고 반지하주택 26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침수에 약한 반지하 주택은 가장 큰 피해를 보였다. 이외에도 화산지하차도와 동수원 IC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장안지하차도는 파손돼 교통에도 문제를 겪었다. 수원에 거주하는 변승현(금공·1) 학우는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며 당시 밖에 있었는데 우산이 소용이 없었고 비 때문에 가시거리가 없어진 느낌이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29일과 30일에 쏟아



<출처=연합뉴스>

진 3백30.2mm가량의 폭우로 세류역이 물에 잠겨 시민들이 침수된 역사를 맨발로 지나가는 등 교통의 불편을 겪었고 중교차 매대단지가 물에 잠겨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한편 이번 중부지방 폭우 사태에 대해 예방할 수 있던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수구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6월부터 거듭된 폭우 피해에도 특별한 배수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쏟아지는 폭우를 수용할 수 없었다. 또한 호우경보가 내려진 8일 이후에도 비상 대피령이 발령되지 않아 수원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기만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관련 회의에서 수원시 반지하가

구 수 파악과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 이후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김민주(영문·1) 학우는 “강남의 한 건물은 방수벽 강화 등을 통해 침수 피해를 면했다”며 복구도 중요하지만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책 또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 장마 기간 동안 반복된 피해에 지난날 중부지방 폭우 사태 이후 수원시는 피해 복구와 보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수원시 지자체는 주택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피해 확인 작업 후 가구당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수원시는 이번 수해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가구를 ABC 등급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A등급에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가 심하며 A등급에 해당하는 가구는 직접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BC 등급에 해당하는 가구는 생활비 지원에 힘 쓸 예정이다.

오준영 수습기자 anan1117@ajou.ac.kr

같은 거리 가격은 두 배, 신분당선 고운임의 원인은?

지난 5월 28일 신분당선 3차 구간의 1단계인 강남역에서 신사역 구간이 개통했으나 높은 운임이 문제시되고 있다. 실제 우리 학교와 가장 가까운 역인 광고중앙(아주대)역(이하 광고중앙역)부터 현 종점인 신사역까지는 약 31.5km로 성인 요금 기준 3천7백50원이 부과된다. 한편 구성역에서 강남구청까지의 31.2km 구간을 분당선 탑승 시 성인 요금 기준 1천7백50원이 부과된다. 불과 0.3km의 거리 차이지만 요금은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적게는 21분에서 많게는 44분가량 절약할 수 있다. 반면 강서구에서 통학하는 김민석(금공4) 학우는 “통학 위치에 따라 시간 절감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좌석버스 대비 시간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등교 시에는 신분당선을 이용하고 하교 시에는 우리 학교 앞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2호선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학우 또한 “두세 정거장을 이동하기 위해 신분당선을 이용하기에는 가격이 부담된다”고 덧붙였다.

신분당선은 향후 광고중앙역에서 호매실로의 연장과 신사역에서 용산으로의 연장이 각각 2024년과 2027년에 착공 예정이다. 전 구간 개통 시 신분당선은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성남특례시 ▲강남구 ▲용산구 순으로 총 5개의 자치단체를 잇게 된다. 특히 신사역에서 용산으로의 연장은 신분당선 3차 구간의 운영자인 새서울철도주식회사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향후 용산까지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 강남역에서 용산역까지의 별도 운임이 다시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앞으로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승재 수습기자 brianlim1212@ajou.ac.kr

문화 예술의 공간, 팔달문화센터 개관

지난달 16일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 팔달구에서 팔달문화센터 개관식이 개최됐다.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자리한 개관식 행사는 화려한 공연으로 예술문화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기타와 국악이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특별히 창작된 길잡이 퍼포먼스를 따라 도착한 지하 공연장에서 성악 공연이 펼쳐졌다. 센터 내 곳곳에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극한직업’이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원시의 모습을 담은 ‘팔달극장’ 상영과 작가들의 그림 및 사진을 전시한 ‘그린나래전’을 통해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다.

팔달문화센터는 2017년경 수원시의 문화예술적 발전을 위해 지역 예술인들의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사업의 기본 계획이 시작됐다.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팔달문화센터는 신한옥 건축물로 지어져 단층의 한옥 건물 3체가 가운데 마당을 둘러싸는 구조다. 마당에선 마당극이나 버스킹 같은 야외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한옥 건물 내에서는 다목적실과 문화 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부지 전체 면적을 활용한 지하 공간에는 2백여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했다. 팔달문화센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장은 공간의 가변성을 높여 관객 참여형 공연이나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뤄질 수 있게 설계됐다.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에 위치한 팔달문화센터는 수원시 시민들이 문화 예술의 주체가 돼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화성행궁과 방화수류정 가까이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방문해볼 수 있



다. 최승은(영문·4)학우는 “우리 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내 봉사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유학생들과 함께 방문해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고 싶다”고 전했다.

정종윤 수원시의회 의원은 “팔달문화센터 개관은 청년 예술가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으로서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놀이터가 되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날 삼포 세대라 불리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쉽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수원시 내 대학교 문화 예술 동아리들의 공연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활발한 문화 교류의 장을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팔달문화센터의 실질적 운영은 전문예술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수원지회(이하 수원예총)에서 맡을 예정이다. 이영길 수원예총 회장은 “시민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허브 공간으로써 완성도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지 수습기자(ajouhye@ajou.ac.kr)

조선의 밤에 달빛을 더하다

용인 한국민속촌 ‘달빛을 더하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늦여름 한국민속촌의 야간 개장 행사 ‘달빛을 더하다’에 다녀왔다. 이번 야간 개장은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초롱들로 촛내 구석구석에 빛을 더했다. 빛나는 초롱이 밝힌 조선 시대의 고즈넉한 밤 분위기를 기자가 직접 담아냈다.

야간 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야간 행사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입구를 통과해 공연장을 지나 건다 보니 남부지방민가 모습의 초가집에서 야간 개장을 더욱 즐길 수 있는 초롱 만들기와 반짝반짝 팔찌 만들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행끼리 삼삼오오 모여 풀칠을 하고 구슬을 꿴는 모습이 제법 재밌어 보였다. 부부끼리 온 관람객 김재희(55) 씨는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었고 할 거리가 많아서 좋다”며 “티격태격하면서 만들고 있지만 생각보다 재밌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발길을 공연장 쪽으로 향했다. 야간 개장 기간 공연장에서는 조선 시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LED와 새도 아트로 표현한 ‘연분’ 특별 공



연이 펼쳐진다. 공연 시작까지는 30분이나 남았지만 공연장은 이미 관람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연을 기다리며 연신 부채질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니 공연이 사뭇 기대됐다. 오후 8시 정각이 되자 공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웅장한 노랫소리와 함께 공연이 시작됐다. 웅장한 북과 장구 소리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



잡았고 광섬유로 제작된 공연자들의 의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LED는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30분간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화려한 공연이 끝나고 곳곳에서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가족과 함께 온 김윤정(36) 씨는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의 퀄리티 있는 공연이었다”며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꼭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야간 개장의 마무리는 곳곳에 위치한 포토존에서 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추가된 포토존은 그림자를 이용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친구끼리 민속촌을 방문했다는 이민석(28) 씨는 “그림자로 사진 찍는 게 신기해서 찍어봤다”며 “뒤에 있는 나무에 걸린 초롱이 사진을 더 잘 나오게 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한국민속촌 콘텐츠키워드팀 남승현 부장은 “올해 야간 개장에 맞춰 제작된 귀굴 두 번째 이야기 혈안식귀도 새롭게 추가됐다”며 “달빛과 초롱 빛들 아래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선 방문이 필수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우리 학교의 한 동문은 “낮의 분위기와 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며 “좀 더 많은 분이 밤에 와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민속촌 야간 개장 행사 ‘달빛을 더하다’는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주말에 개장된다.

임승재 수습기자 brianlim1212@ajou.ac.kr

Z세대 창업가

일호선부터 구호선까지. 직원들의 행복을 싣고 달리다

659호부터 663호까지 'Z세대 정치인'이라는 코너에서 당찬 포부를 갖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들을 만났다. 이제는 'Z세대 창업가'다. 본보는 이 코너에서 젊음을 무기로 혁신에 도전하는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보고자 한다. 기성세대의 영향력이 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반과 경험 모두 부족한 청년 세대가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가치있다. 세상에 풍요로움을 더해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본보의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닿기를 바란다.



하면서도 막걸리에 해박한 사장님으로 알려져 있다.

'Z세대 창업가'는 젊은 나이에 창업을 결심한 창업가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Z세대 기자가 직접 Z세대 창업가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새로움에 도전하고 세상에 풍요로움을 더하는 젊은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발걸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 조남일
출생년도: 1992년생
사업체: 요리주점 일호선, 사호선, 팔호선
경영철학: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992년생 조남일 씨는 현재 우리 학교 인근에 위치한 요리주점 일호선과 사호선 그리고 팔호선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11월 일호선 오픈을 시작으로 외식업 사업에 뛰어들어 그는 현재는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 친근

창업의 시작,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교집합
 조남일 씨에게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 그는 과거 한 권의 노트를 적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조 씨는 "군 전역 후 노트의 한쪽 면에는 내가 잘하는 것을 적고 또 다른 면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기 시작했다"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이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잘하고 나의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나를 발견해 사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조 씨는 대학생 때부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식당과 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힘든 현실에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본인

의 경험을 거름 삼아 꿈을 향해 나아간 그의 태도가 지금의 일호선을 만들지 않았을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2. 손님들은 우리의 공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3. 우리의 공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남일 씨의 세 가지 운영 철칙이다. 그의 철칙 중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공간에 대한 손님들의 예의'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를 우선시하겠다는 조 씨의 경영철학을 반영한다. 조 씨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훌륭한 직장 동료이자 소중한 가족이다"며 인터뷰 내내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실제로 조 씨의 매장을 방문하면 직원들끼리의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 수 있게 된다. 직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조 씨만의 철칙은 오히려 우리가 품위있는 고객이 되게 하는 듯하다.

일호선부터 구호선까지, 그의 종착역은 어디까지인가

일호선과 사호선 그리고 팔호선. 지하철 노선을 연상하게 하는 듯한 상호명이다. 이는 매장의 상징성과도 맞닿아있다. 매장은 실제 북유럽 기차 모형의 인테리어 소품들이 진열돼있다. 조남일 씨는 모형 기차들에 대해 "유년시절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며 직접

만들고 수출하던 기차들이다"며 "아버지의 기차를 상징화한 매장을 차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일호선이라는 명칭은 매장이 위치한 수원을 지나는 지하철 호선이자 조 씨의 첫 번째 사업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조 씨는 "각자의 특색을 담은 일호선부터 구호선까지의 매장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는 회사를 설립해 직원들의 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창업을 꿈꾸는 학우들에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의 조언을 부탁했을 때 조남일 씨는 애정 어린 목소리로 이 말을 전했다. 조 씨와 일호선의 시작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조 씨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창업 과정에서는 내부 페인트칠부터 매장에 사용할 의자 하나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했다. 일호선의 초창기에는 적은 매출에 난방비를 걱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 씨는 "본인의 매장을 찾아주는 모든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함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열정이 있으면 창업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행복을 싣은 조남일 씨의 기차는 지금도 분주히 달리는 중이다. 조 씨의 기차가 종착역까지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윤주선 기자 dbswnjts9090@ajou.ac.kr

청년 정책 놓치지 말자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경기도에서 면접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돕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하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면접에 사용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주민등록등본상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활동 회당 5만 원씩 연 최대 6회 3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청년면접수당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내놓은 공약으로 2020년 5월 최초 시행됐다. 당초 취업 포털과 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당 3만5천 원씩 연 최대 6회로 총 21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급단가가 너무 적다는 도의회의 권고와 더불어 설문조사 등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부터 지급 금액과 횟수를 인상했다.

실제 청년면접수당의 만족도는 높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청년면접수당 사업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중 약 85%와 사업 신청자 중 약 9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긍정 평가의 이유

로는 면접 비용 부담이 경감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취업준비생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라는 의견도 뒤따랐다.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20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이하 복지국 행정감사)에서 최호현 경기도의원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까지 청년면접수당을 주는 것이 당초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한다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이하 코로나 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 면접까지 청년면접수당의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 경기도청 김현중 주무관은 "근로 시장이 아르바이트와 특수 고용직 그리고 프리랜서 등으로 다변화됐고 코로나 19로 채용시장이 위축돼 이를 반영했다"며 "작은 일자리라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소외하지 않도록 근로 형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업에서 마련해

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복지국 행정감사에서 이영주 전 경기도의원은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다"며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고민해야 하나 대기업 등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기업에는 청년면접수당이 면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에서도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비를 지원하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청년면접수당의 2차 신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thankyou.jobaba.net)에서 가능하다. 김 주무관은 "회당 5만 원이라는 돈이 부족할 수 있지만 취업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877-2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승재 수습기자 brianlim1212@ajou.ac.kr

2022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 일정

모집 기간: 2022.8.22(월) 09:00 - 2022.9.23(금) 18:00

신청 기간: 2022.8.22(월) 09:00 - 2022.9.23(금) 18:00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만 18~39세 이하 청년

신청 방법: thankyou.jobaba.net 온라인 신청

아주무해해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 장애인 복지관

'아주 무해해'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후기를 남기는 코너입니다. 봉사에 동참해주세요.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2백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재활을 돕는 등의 목적으로 전국에 2백48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있다. 필자는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사를 진행했다.

장애인 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장애 관련 교육과 봉사하며 주의할 점을 들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욕을 하거나 소리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말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도와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만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다. 먼저 사회참여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직업훈련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일을 했다. 직업훈련으로 부품을 조립한 후 상자에 쌓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조립한 물품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시간이 남을 때는 함께

부품을 조립했다. 직업훈련을 하고 있던 장애인은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다양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자활을 위해 작업량을 점검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직업훈련 중인 장애인들은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필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들은 처음 하는 일을 낯설고 어려울지라도 지속

적으로 알려주고 적응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직업훈련이 끝난 후 식사 시간이 됐다. 중증도가 높은 장애인의 경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렵다. 더불어 음식물 섭취가 비장애인에 비해 느리고 음식을 잘못 삼킬 우려가 있기에 식사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관은 하루에 적게는 70명에서 많게는 2백 명의 장애인이 방문하기 때문에 한정된 봉사자와 직원이 장애인의 식사를 돕기에는 어려웠다. 식사 시간을 통해 장애인을 살릴 수 있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복지관 근처에 있는 산림욕장으로 산책했다. 장애인과 손을 잡고 숲속을 걷는 것은 세심한 노력이 필요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걸음 속도가 느리기도 하지만 바닥에 깔린 자갈과 나뭇잎으로 인해 무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함께 걸었던 장애인은 무리에 뒤처지지 않게 속도를 냈고 다치기라도 할까 걱정돼 천천히 가자는 말과 함께 발을 맞춰 걸었다. 장애인들은 산책을 좋아했지만 산책은 날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날씨가 흐린 날과 직원들의

일이 많은 날 그리고 행사가 있는 날은 가지 못한다고 했다. 봉사를 하러 간 날은 날씨도 좋았고 직원들의 일도 많지 않았고 행사가 있지도 않았다. 운 좋게 장애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하루는 짧다. 오전 10시가 되면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모이고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6시가 된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김 씨(32)는 "장애인과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종종 발생해 힘들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며 "장애인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봉사자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직업교육과 장애인 돌봄 그리고 특별활동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봉사의 유형도 다양하다. ▲급식 및 주방 자원봉사 ▲재능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 보조 ▲학습 보조 이외에도 장애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봉사를 1365 자원봉사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궁민재 기자 minjae020301@ajou.ac.kr

전문가 원톱체제와 양산성 예능, 심리상담 예능의 명과 암



▲금쪽같은 내 새끼 ▲서클 하우스 ▲오은영의 금쪽상담소 ▲오케이? 오케이!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등 최근 심리상담 예능이 열풍이다. 사연자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진행자나 패널이 조언을 해주는 식이다. 따뜻한 위로와 솔루션이 당사자는 물론 시청자에게도 이어진다. 요즘 '심리'를 더한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다. 리얼버라이어티와 관찰 예능 그리고 심리상담 예능의 순으로 진행된 예능의 흐름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리상담 예능, 하나의 예능으로 바라볼 수 있나?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 및 쇼 또는 오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뜻한다. 진지한 상담이 이뤄지기 위해선 진실성의 원리와 비밀보장의 원리 그리고 의도적 감정표현의 원리 등이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재미를 목적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상담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의 여론도 존재한다. 과연 이 둘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인가?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김현식 평론가는 '심리상담 예능'의 탄생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방송국이 소재고갈에 시달리다 보니 상담을 하나의 예능 소재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상담 대화 속에 재미요소가 있다 보니 그것을 일컬어 상담 예능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우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김영아 상담가는 "사연자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 받고 싶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김 상담가는 "아무리 예능이라도 상담이라는 틀을 해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상담가는 "개인적으로 사연자의 검사결과지를 방송에 그대로 노출하는 행위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심리상담 예능 그 원인은?

과거 심리상담 예능은 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성격을 띄었다. 하지만 사연자들의 이야기가 점점 극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상담 예능은 토크쇼를 가미한 예능장르로 자리잡았다. 2020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진행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 시대에 크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불안(47.5%)과 분노(25.3%) 그리고 공포(15.2%)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이 약화된 상태에서 대중의 관심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상담가는 이를 '사회적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경쟁과 비교가 심각한 한국사회 특성상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담가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예능으로 파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심리상담 예능은 경쟁과 비교에 익숙한 한국인의 심리를 자극했다.

자칫하면 딱딱할 수 있는 '상담'이라는 소재에 '재미'와 '전문성'이 더해진 원인이 있다. 김 평론가는 "상담에 예능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며 "기존 전문가들이 해주지 못한 부분을 프로그램이 일정부분 대체한다"고 전했다. 특히 육아상담 예능에서의 전문가 조언은 시청자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실질적인 방식과 노하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 받기 어려웠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가 어느정

도 극복된 것이다.

저렴한 제작비와 시청자들의 대리만족 또한 한 몫 했다. 우선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출연진과 함께 스튜디오 녹화로 진행된다.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리얼버라이어티예능이나 관찰예능에 비해 제작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심리상담 예능에 매료된 사람들

평범한 주부 신미희(52) 씨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푹 빠졌다. 신 씨는 지금까지 모든 화를 본방사수했다. 연예인의 고층을 오은영 박사가 직접 조언하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그녀의 편견을 깨뜨렸다. 신 씨는 "평소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은 더 이상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기도 하다.

홍옥형(정외·1) 학우는 '서클 하우스'의 열혈 시청자다. 특히 5화에서 홍 학우는 주식에 전 재산을 올인한 23살 한탕이의 사연을 인상깊게 봤다. 한탕이는 투자로 차 한 대에 버금가는 돈을 잃고 벌어진 전업 투자자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홍 학우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추상적 행복보다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확실한 행복도 중요하다"며 "굳이 돈이 많아 행복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다"고 말했다.

“

김 평론가는 "일종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상담 예능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마치 '판관 포청천' 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행동한다"고 밝혔다.

”

심리상담 예능의 부작용과 전문가 맹신현상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들으며 힐링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예능에도 부작용이 존재한다. 예능은 심리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정보유출과 비난 ▲상담의 과정 생략 ▲의사윤리 위반문제 ▲자극적인 사연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더불어 가장 인기와 수요가 높은 인물을 섭외하기 때문에 '전문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상담가는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라 말했다. 김 상담가는 "제작진이나 출연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며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심리를 판단하면 왜곡은 물론 서로에 대한 비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는 "일종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상담 예능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마치 '판관 포청천'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행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평론가는 전문성이 필요한 상담에서 비전문가가 출연해 '주마간산식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상담이 예능

과 결합했을 때 예능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과연 이걸 상담이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시청을 나아가 참여로

사람들이 타인에게 심리를 터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상담의 장벽 또한 낮아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현황 통계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2019년 상반기 1백만 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백85만 건으로 늘었다. 여성가족부의 1388 청소년전화 접수현황에서도 지난해 48만 건이 나올 정도로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나 고민상담 그리고 마음의 치유에 관한 도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담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마음그루 아작가족 상담연구소 이승은 책임연구원은 "실제로 예능을 시청하는 학부모가 많다"며 "전문 자격이 없고 미숙련된 상담사를 만날 수 있어 충분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상담사는 "심리상담 예능의 효과를 느낀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공부해온 학우가 많았다"며 "그들은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상담가는 우리 학교 학우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김 상담가는 "아주-허브로 쉽게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포탈에 '위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쉽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도서사이트에선 멘토링 관련 서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 박사의 저서는 인터파크와 교보문고 등에서 스테디셀러로 순위에 올랐다. 실제 오 박사의 저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다. 2020년 10월에 출간된 '어떻게 말해야 할까'는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인터파크 가정과 생활분야 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도서가 인기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와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와 같은 도서가 큰 인기를 끌었다. 평소 인간심리에 관심이 많은 이하원(심리·1) 학우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를 읽었다. 이 학우는 "사람의 복잡한 감정과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며 "내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실제로 아이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보는 이들이 많다"며 "학부모들이 심리관련 도서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후 심리상담 예능은 7년 만에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 예능의 사회적 순기능 덕분에 '상담'은 각광받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과거 아이의 사례로 한정됐던 심리상담 예능은 점차 대상이 확대됐고 어른도 가끔은 아이처럼 울 수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비난 등 부작용도 명확했다. 심리상담은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에 가볍게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심리상담 예능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방송을 맹신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책잡고 세상보기

물질문명의 풍요 속 쌓여가는 쓰레기의 소리 없는 아우성 - 녹색시민 구보 씨의 하루

커피 한 잔과 아침 신문을 즐긴 뒤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점심으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은 어느 날이었다. 구보 씨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다만 그는 하루 동안 약 54kg의 자원을 소비했고 자신이 세상에 끼친 영향을 몰랐을 뿐이다. 모두가 한 번쯤 경험 해 봤을 흔한 날이지만 우린 그 하루가 만들어 낸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인식하진 못한다.

우리는 구보 씨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일상을 당연하게 영위하고 있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마시면 쓰레기가 만들어진다는 마음 한 켠의 불편함은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라며 합리화한다. 일회용 컵 하나에 담긴 음료가 불러일으킨 쓰레기의 나비효과는 상상도 초월한다. 커피 한 잔들이 모여 원시림 하나가 파괴됐고 조류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 가져간 엄청난 크기의 원시림을 파괴할 수도 있다. 햄버거 속의 쇠고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초지의 손실과 메테인으로 인한 공기 오염이 초래된다. 햄버거 하나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자연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이곳 지구에서는 햄버거 속 패티와 커피 원두는 한 개일 수 없다.

그저 삶을 사는데 왜 의도치 않게 다량의 쓰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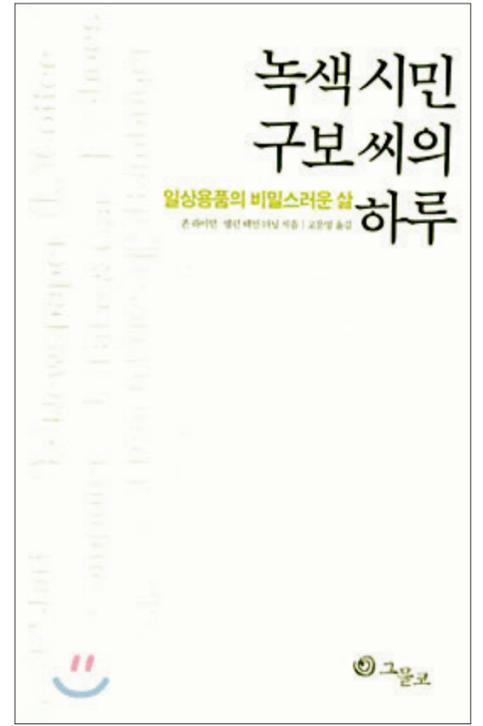
만들어내고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삶 각 분야의 잉여 생산품은 쓰레기와 오염을 초래한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병폐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소비사회라고 칭한다. 소비자는 새로운 물건을 사도록 재촉당하고 강제되며 회유된다. 고수익과 소비를 촉진 위한 경쟁적 대량 생산은 지극히 구조적이다. 더 편리하고 멋지고 맛있는 신상품은 우리의 반복적 소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쓰레기를 양산한다. 일상 속 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품들과 그것의 편리함에 잠식된 현대인은 다량의 쓰레기 발생을 인지해도 멈출 수 없는 소비의 늪에 빠진 것이다. 편리함 속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다량의 소비는 규모의 생산으로 그리고 쓰레기로 이어진다. 쓰레기로 뒤덮여가는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수의 이해관계가 혼재된 소비사회에서 구조적 모순을 한 명의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소비의 감축이다. 단적인 예로 과거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껌의 경우 소비가 줄어들자 시장 자체가 축소되었고 껌의 종류와 생산량 모두 줄어들었다.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고 생산 규모가 작아지면 생산 과정에서 비롯

되는 환경의 파괴도 줄어든다. 생활필수품을 지금 당장 구매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다음에 구매하게 될 땐 그 물건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소비를 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시야 밖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더욱 많음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해야 한다. 친환경적 생산 방식의 상품이나 다회용품 구입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소비를 할 것을 권하는 바다.

구보 씨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이었다. 하지만 책장이 넘어갈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소비들이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양산 중임을 인식하게 된다. 끔찍한 소비의 결과를 알게 된 구보 씨는 녹색 시민이 되기로 마음먹는다. 환경을 보호할 방법은 다양하다.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채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 속 작은 실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구보 씨처럼 소비의 이면을 인식하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노력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녹색 시민 구보 씨는 혼자서 구조적 병폐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낮은 자세로 자신의 일상과 소비를 되돌아본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우리의 실천은 분명 거대한 나비효과로 되돌아온다.

이자민 기자 jasmneljm@ajou.ac.kr



영화로 보는 세상

조커의 실험, 두 가지의 선택

영화 '다크나이트'는 이분법적으로 나뉘져 있는 선과 악 그리고 정의에 대한 담론을 과감히 관객에게 전달한다. 정의로운 검사 하비 덴트는 배트맨과 함께 범죄 소탕 작전을 펼치며 고담시를 지켜 나간다. 궁지에 몰린 범죄 조직은 행동대장인 배트맨을 없애기 위해 조커를 섭외한다. 도시는 다시 혼란에 빠졌고 조커는 배트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다. 배트맨의 정체가 궁금한 조커는 그가 가면을 벗을 때까지 매일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선포한다.

조커는 배트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사회실험을 진행했다. 그가 '악'을 행하는 방법은 독특하다. '선'의 인물을 타락시키는 게 그의 가장 큰 오락이자 목적이다. 조커는 시민들을 협박해 두 척의 배를 타게 한다. 사실 한 척에는 일반 시민이 있고 다른 한 척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다. 조커는 두 배에 폭탄을 설치하고 상대방 배의 기폭 장치를 쥐어 준다. 그리고 먼저 기폭장치를 누를 시 살려준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조커는 고담시민들을 두 편으로 갈랐고 당신이 먼저 죽어야만 살 수 있

다고 선포한다. 그의 실험은 피실험자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과 악의 경계에 몰아세운다. 이처럼 조커의 실험은 피실험자에게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한다.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조커'스러운 면이 있다. 특히 조커가 피실험자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준 점과 우리 사회 갈등의 선택지가 유사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내세워 '이대남'과 '이대녀'를 탄생시켰고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그리고 부자와 빈자로 편을 나누게 했다. 그저 국민을 반으로 나누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고 묻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고담시민과 달리 소통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조커의 '실험실'과 같다.

실험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우리도 고담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영화에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시민들이 현명하게 조커의 함정을 극복했고 그의 계획은 물거품 됐다. 처음엔 고담시민들은 죄수가 죽는 게 낫다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우세했다. 하

지만 고담시민들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결정과정으로 선과 악의 갈등을 극복했다. 이분법적으로 나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길 바라면 안 된다. 첨예하게 두 가지로 나뉜 세상은 타인을 악인으로 몰아가기 쉽다.

실험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끊임없는 감론을박이 필요하다. 각 지역을 기반으로 생긴 정당은 지역주의를 부추겼다. 과거의 정치권은 영남과 호남을 갈랐고 세대를 갈랐으며 최근엔 성별갈등도 조장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 투표율에 대한 성별차이가 명확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라는 틀에 갇혔고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게 됐다. 고담시민들의 갈등 해결방법은 간단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면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과 여러 가지의 인격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조커의 실험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최동학 수습기자 ehdgkr914@ajou.ac.kr



역사 속 오늘

30년 한중관계 미래는 어떻게 그려야 할까?

한국은 중국의 과거부터 깊은 관계를 맺은 국가로서 역사에서 서로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념의 차이와 한국전쟁 이후 두 국가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92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이상욱 당시 한국 외무장관과 첸 치천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며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를 뒤로 하고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길을 마련했다. 이 공동성명은 당시 노태우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꼽히는 '북방정책'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평가받는다.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를 맺은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 됐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됐다.



고 있다. 게다가 이는 민간차원에서도 확대됐다. 2016년 미국의 사드의 배치 후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한류스타와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막는 한한령을 발령하자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적 교류는 막혔고 이후 중국의 동북공정과 김치와 한복 중국 원조론 등이 가세하며 국내 반중 정서가 커졌다. 중국 또한 '애국 소비'가 확산되고 자국 중심주의의 세계관이 강해지면서 중국 내의 반한 정서도 심각해졌다.

미래 발전을 도모하려면 현재의 이러한 갈등 상황을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 사실 수교 이래 한중 간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외적인 요인에서 발생했다. 한중 갈등의 시작이라 평가받는 사드 사태만 봐도 미국의 중국 견제와 북핵 억제를 위해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고 한국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과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1992년 전 나쁜 관계로 회귀하는 것보다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

해 나가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더 부합한다. 그리고 이는 상호존중과 신뢰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중 수교가 노태우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꼽고 있는 '북방정책'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한국 전쟁과 이념전쟁으로 발생했던 한중간의 혐오 감정을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로 서로에 대한 혐오 감정을 없애고 협력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중간 국민감정 악화를 방지하는 것은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이를 경험했고 극복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양국의 소수 배타적 국수주의나 애국주의 집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국내적으로 서로에 대한 카더라 통의 소식만 듣고 감정을 쌓아 두기보다는 정치와 경제는 물론 사회와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다층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 자주성과 정체성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단순한 타국에 대한 혐오가 아닌 문제 있는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다시 한번 한중수교가 맺어질 당시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좌 기자 rlaalswhk12@ajou.ac.kr

펜끝에서

다문화 교육, 이제는 변화할 때



윤주선
기자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시작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 가구원은 이미 2019년에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다문화 학생은 16만 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3%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여전히 낮은 이방인일 뿐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보내는 불편한 시선에 더욱 크게 상처받는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가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은 주로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난민 수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은 충분한 사회

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다르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갈등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교육 정책이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교육부는 최근 5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은 5천 명에 육박하며 이 중 30%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꼽았다고 발표했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언어장벽이 야기하는 학업성취의 차이가 더욱 큰 것 또한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이 지표들은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이 결코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이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매우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의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다문화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0조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지만 그 어디에도 기존 내국인들의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다문화교육 지원계획도 대부분의 내용이 다문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방향적인 한국화를 표방하며 그 대상 또한 소수 집단에 한정된 지금의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강요이자 또 다른 폭력이다.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캐나다가 내세운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캐나다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이중 언어를 채택해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와 같은 단일민족 국가인 일본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 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민족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교육 정책의 변화를 꾀한 바 있다. 이는 모든 정책

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교육에서만큼은 모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껏 우리는 차별과 편견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변화를 강요해왔다. 문화강국이라 자부하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은 전체 구성원이 대상이 돼야 하며 일방향적인 주류문화로의 동화를 추구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기존 내국인들의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변화는 교육에서 시작한다.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을 갖춘 세대가 하나된 세계 속에서 또 다른 사회를 열어갈길 기대한다.

먼네골 메아리

함께 경험한 재난, 그러나 전혀 다른 재해



변현경
(사회 · 4)

2019년 개봉해 1천만 관객을 동원하고 이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이라는 기염을 토해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의 후반부에는 극심한 폭우로 인해 송강호(기택 역) 일가의 반지하 주택은 물론이고 그 일대가 전부 물에 잠기는 장면이 등장한다. 반면 이선균(박 사장 역) 가족이 거주하는 2층 규모 저택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저 넓디넓은 마당의 운치를 더해주는 장치일 뿐이다. 해당 영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그에 따른 불평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으나 그 비극적인 시놉시스는 곧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지난 8일과 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폭우로 인해 각종 재해가 잇따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일 강우량은 3백80mm에 육박했다. 12시간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강우량이 1백10mm 이상일 때 발효되는 호우주의보 그리고 1백80mm 이상일 때 발효되는 호우경보 기

준을 훌쩍 넘긴 수치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져 내리는 전례 없는 폭우에 1만 건을 상회하는 침수차 신고가 접수됐고 인도와 차도가 너나 할 것 없이 잠겨 교통 상황 자체가 마비되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양일간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돼 최악의 인명 피해 역시 피하지 못했다. 황사에 악사(惡死)와 호사(好死)가 어디 있겠냐만 급류에 휩쓸리거나 맨홀에 빨려드는 등 다양한 원인을 두고 발생한 사고 중 유달리 많은 이들이 울분의 목소리를 낸 것은 동작구 상도동과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숨진 이들 중 발달장애인 과 초등학생이라는 사회적 약자가 포함돼 있기에 그 비통함과 화제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반지하 주택이 아닌 오롯한 지상 건물에 거주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집과 살림살이가 잠기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었던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자동차를 소유하면서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이 있기에 그 대처 매뉴얼이 명확했다. 반면 반지하 주택의 경우 말 그대로 주택 구조의 절반이 지면 아래로 들어가 있기에 위와 같은 침수 피해로부터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지사다. 가까스로 변을 피한 반지하 주택주민들 역시 밤새 그치지 않는 비에 잠 못 이루며 직접 대야로 빗물을 퍼내고 수건으로 바닥을 훑쳐야 했다. 동작구 사당동의 반지하 단칸방에 거주 중인 필자의 지인 역시 "집이 저지대인 탓에 하수구가 역류하며 하수와 오물이 밀려 들어와 한동안 악취와 곰팡이에 시달리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옥과 같은 나날은 비가 그친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수재민이 돼버린 시민들은 당장에 생활할 곳이 잠겨버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수재민들은 SNS를 통해 답답한 심경을 공유했다. 이튿날 동사무소에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직접 신고해야 하려 하니 침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제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까지 이어졌다.

물이 들이닥친 집에 다시금 들어가 지원금을 타기 위해 구석구석 사진을 찍는 반지하 주민에게 이입해본 적이 있는가.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 상황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리키는 재해는 사람을 가려 가며 크고 또 작은 가지각색의 모습을 띠기 마련이다. 아래로 떨어져 흘러드는 빗물은 '아래'에서 숨 쉬고 있는 이들을 겨냥해 적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어찌면 남겨진 카드는 '각자도생(各自圖生)'뿐이다.

독자의 시선

663호를 읽고



남은설
(금융 · 1)

663호 1면에 장식된 연합 하계축제에 대한 내용은 눈길을 이끌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연합 축제인만큼 많은 이들이 기대했고 즐겼다. 학보를 통해 축제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의 노고를 생각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축제를 떠올리며 추억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우리 학교의 정전과 서버장에 그리고 교내 와이파이 환경을 다룬 기사도 볼 수 있었다.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교내 네트워크 환경은 평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이와 관련

된 기사는 학생들의 요구를 대표해 목소리를 낸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의 긍정적인 소식을 알 수 있는 기사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정보통신대학원 'BDS 전공' 신설 ▲2022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선정 ▲국토교통 DNA+기술대학원 사업 선정 ▲우리 학우들의 우수논문상 수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학우들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다. 몰랐던 학교의 학업 성과를 알게 되어 놀라웠고, 이렇게 기술과 IT의 시대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얻은 성과를 밑바탕으로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중요하게 봐야할 기사는 8면의 올해 1학기 매니페스토라는 생각이 들었다.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그리고 단과대학의 공약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들을 담은 기사다. 모두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공약은 그 자리에 올라 하기로 한 약속이기에 이를 학교 언론으로서 검증하는 매니페스토는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 자치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관심을 가짐으로써 학생 대표 단체들이 공약 수행 등에 더욱 힘쓰며 노력할 것이고 학보는

교내 언론으로서 이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교외와 관련된 기사 중에는 신분당선 연장을 담은 기사가 흥미로웠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광교중앙역을 거쳐 지하철을 이용하므로 해당 기사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학교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위치한만큼 서울에 비해 교통편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신분당선 연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주었다.

正論直筆 + 實事求是 = 正論직필 + 실사구시 =  아주대학교 학보사

아주 만평



기자일기

편견에서 책임감으로

학창시절 '기레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기자들은 앉아서 글만 베끼고 특종만 찾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선 넘은 기자의 질문에 화가 난적도 있다. 기자에 대한 불신은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뉴스는 소통과 공감에 결여됐고 양산성의 기사가 가득하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나는 언론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다.

하지만 학보사에 들어오고 난 뒤 편견이 무너졌다. 언론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663호에서 우리 학교 장에 학우의 어려움을 취재할 때 언론의 소중함을 체감했다. 장애학생에게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들이 많았다. 글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독자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찾아 다녔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끊임없이 펜을 부러뜨리며 보다 더 좋은 글을 쓰기위해 노력했다. 단 한명이라도 필자의 글을 읽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된다면 성공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의 가치는 상당하다.

언론협오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책임감이 생겼다. 이제는 언론의 무게감을 체감한다. 학보에 실리진 않았

지만 오보를 범할 뻔한 적 있다. 교내 익명사이트 '에브리타임'에서 한 익명 학우의 제보를 맹신 해서다. 그러나 사실무근의 정보였다.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을 매도할 뻔했다. 이로 인해 필자의 글을 꾸준히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다. 사소한 잘못된 정보나 문장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쉽게 죄인으로 낙인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가끔 무섭지만 달갑게 듣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마감할 때마다 글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신학생회관 입구에서 바닥에 떨어진 채 비에 젖은 신문을 본 적 있다. 화가 북받쳐올라 물기를 털고 제자리에 뒀다. 학보를 바닥에 버린 이에게 증명하고 싶다. 결코 우리 학보는 바닥에 버려질 정도로 가치가 없지 않다고 말이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선 기자 혼자 역량을 부족하다. 학보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언론의 위기에서 우리의 학보를 읽는 독자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이다. 이번 기자일기가 곧 정기자가 되는 나에게 다짐의 글이 됐으면 좋겠다.

최동학 수습기자 ehdgkr914@ajou.ac.kr

아주퀴즈

1. 5월 17일 개관한 총동문회 홍보관 이름은?
2. 청년면접수당의 2차 신청기간은?
3. 개교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4. 우리 학교 요리주점인 '일호선'과 '사호선' 그리고 '팔호선' 사장님 성함은?
5. 퇴행성 뇌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을 정도의 심각한 지적기능의 상실을 가져오는 치매(dementia)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6. KT의 두 가지 사업분야는?

“제보 바랍니다!”



아주대학보사는
학내의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설

대학 안전관리계획, 유명무실해서는 안된다

지난 7월 15일 한 여성이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가해자를 준강간치사 및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추모의 행렬이 이어졌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교훈은 명백하다. '안전한 캠퍼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캠퍼스 내에서의 성범죄는 꾸준히 지속된 문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미투 운동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접수된 성범죄 사례는 약 3백30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대학 문화 특성상 성범죄 고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된다. 본 사건이 발생한 같은 달 4일 연세대학교에서는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재학생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건 다음 날 중앙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캠퍼스 내에서 같은 과 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안전한 캠퍼스를 외치는 대학은 많았지만 드러난 실상은 허무하기 그지없다.

사건이 발생 직후 교육부는 CCTV 확충과 성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캠퍼스에는 이미 2천3백45개에 달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교육부의 보여주기식 대처였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며 상황을 수습하기 바꿨다.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각 대학과 교육부는 대학안전관리계획을 공시하지만 성범죄 관련 조항은 예방 교육과 안전 인프라 및 시스템에 관한 형식적 내용에 불과하다.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혹은 경비원 확충은 거듭 예산의 벽에 가로막힌다. 우리 학교의 안전관리계획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무고한 피해자의 사망 이후 6일 만에 교육부는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사에다 구체적인 계획도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대학은 예산상 한계로 수년간 교내 경비인력을 감축해왔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경비인력 감축으로 2천 개가 넘는 CCTV를 감시할 인력이 4명에 불과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으로 관련 예산 확충이 어렵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캠퍼스 안전이 도마 위에 오른 현재 성평등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 행정적 변화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캠퍼스 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대학과 교육부가 합심해 진정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자들의 책무다. 무고한 생명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재난이 재앙이 될 때

지난달 8일과 9일 양일간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최대 4백9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잇따랐다. 5백48세대 9백82명이 집을 잃었으며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거주 여건이 열악했던 이들에게 재난은 '재앙'이었다.

1995년의 미국 시카고는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을 맞이했다.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는 7백 명이 넘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른 이들은 사회에서 고립된 취약계층이 대다수였다.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2002년 저서 '폭염사회'를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재난 상황에서의 생존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죽음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책 '폭염사회'의 교훈이다. '폭우사회'를 맞이한 한국은 어떠했는가. 서울 시내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던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중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례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기상청 대변인은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폭우의 원인을 대기흐름이 막혀 한 곳에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에 의한 장마전선 형성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블로킹이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의 원인이며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한 환경오염이 폭우를 발생시켰다면 그 대가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이었다.

원인의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의 책임이다. 앞서 폭염사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집단이 재난에 취약하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반지가 직역돼 외신에 보도되는 등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됐다. 재난상황 발생 전부터 취약한 거주환경을 방치하다 막상 재난이 닥치고도 기만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대처의 미숙함이 드러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 확산에 취약했던 이들도 폭우 속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들도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었다. 재난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없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조치하지 않는 재난은 '재앙'이 된다. 재난이 재앙으로 또다시 번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 또한 '폭우사회'를 교훈 삼아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난상황 및 전반적인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THE AJOU PRESS

발행인 최기주 편집인 박재연 편집장 부석우

전화 : 031-219-2156
홈페이지 : www.press.ajou.ac.kr
이메일 : ajouacademicjournal@gmail.com
퍼낸 곳 : 아주대학교 대학언론사 아주대학보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신학생회관 206호

아주대학보사
1974



전략적 무능을 택하세요!

신수정 kt 부사장을 만나다

“전략적 무능을 택하세요”

일에 전념하며 회사에 빠를 문겠다는 직원에게 그러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리더가 있다. 일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는 ‘일의 격’ 작가이자 2만6천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한 기업인 신수정 kt 부사장을 만났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KT Enterprise 전체 부문을 맡고 있는 부문장이자 KT에서는 부사장을 맡고 있는 신수정입니다.

Q KT Enterprise 부문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궁금하다.

A KT에는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다. 하나는 B2C 사업으로 우리가 보통 아는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업을 말한다. 또 하나는 B2B 사업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B2B 사업을 KT에서는 KT Enterprise라고 칭한다.

Q 삼성 SDS와 SK인포섹 (현 SK윌더스)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는 KT Enterprise 부문장까지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다.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나 가치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일의 격’ 책에도 썼는데 이런 커리어를 할 거라고는 계획도 안 했고 생각도 못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크롬볼츠 교수가 성공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80%가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진행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낙관성 ▲위험 감수성 ▲유연성 ▲인내심 ▲호기심 이 5가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운이 잘 찾아온다며 계획된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다. 생각해 보니 나는 인내심은 조금 부족해도 낙관성과 유연성 그리고 호기심이 있었고 위험이 왔을 때 감수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 같다. 이것이 이런 커리어를 갖게 된 요소가 아닌가 싶다.

Q 오랜 기간 리더로 계셨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자세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A 리더가 멤버와 다른 점은 멤버는 자신이 잘하면 되지만 리더는 다른 사람이 잘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거다. 자신이 똑똑하고 잘하는 게 초점이 아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와 훌륭한 코치가 다르듯 리더의 초점은 자신이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성장하고 마음을 합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다른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보게 하고 동기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Q 현대 사회에서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A 리더의 초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다. 가르친 학생 중 대학교 학생회장이 있었다. 그 학생은 학생회 임원들과 마음을 합쳐 무언가 움직이는 게 어려워서 찾아왔었다. 리더가 일을 할 때 본인의 사심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갈린다고 생각한다. 나쁜 리더는 조직을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조직을 이끌거나 리더십이 있더라도 선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직을 이끈다. 반면 좋은 리더는 조직의 건강한 목표를 위해서 조직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사회에 선한 유익을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심을 최소화해 조직 전체에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Q 2만 6천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시다. SNS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A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딘가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SNS를 마흔 다섯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0년이 넘었다. 책과 사람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나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일기장이 아닌 SNS를 택한 이유는 공개 석상에 기록하면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거 같아서다. 나 혼자서만 기록하면 지속성이 없는데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등의 공개형 플랫폼에 꾸준히 기록하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니까 지속성이 생긴다. 시작은 사소한 메모들이었는데 사람들의 팔로잉 덕분에 기록을 지속해올 수 있었다.

Q SNS의 장점이 ‘약한 연대’라고 하셨는데 약한 연대란 무엇인가.

A 강한 연대(strong tie)라는 건 학과 친구들이나 부모님 이런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연대를 말한다. 강한 연대의 대상은 한정돼 있다. 또한 강한 연결은 주로 자기 수준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약한 연대의 SNS는 자기 수준의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SNS는 나와 다른 직업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람들과 약한 연결이 형성돼 필요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디어를 받는 사람은 강한 연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연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약한 연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SNS는 장점을 지닌다.

Q 대학생들이 SNS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대학생들도 꾸준히 자신의 경험이나 배운 것들을 SNS에 짧게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 또한 된다.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이나 읽은 책을 짧게라도 축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의 SNS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 연결되기가 훨씬 쉬워진다. 용도를 분리한 계정 운영도 방법이다. 일상의 기록은 A 플랫폼을 내 생각은 B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SNS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SNS 활동도 접고 일에 전념하며 회사에 빠를 문겠다는 직원에게 그러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앞으로 기업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지 궁금하다.

A 사실 기업은 똑똑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오래 있는 걸 원한다. 하지만 개인의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다. 본인에게 필요한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쌓을 수 있으며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 옛날에는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게 마치 군대 같았다. 신병이 들어오면 상사가 직접 불러 교육했는데 지금은 점점 프로 축구단 처럼 돼가고 있다. 축구단이 선수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즉 개인이 스스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다. 예전에는 기업이 신입사원을 잔뜩 뽑아서 몇 년간 교육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도 신입사원 공채를 안 하고 경력자를 뽑고 있다. 대학생들도 변화에 발 맞춰서 입사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Q ‘일의 격’ 책을 출판하면서 일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직장인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하셨다. 일을 통해 성장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 첫 번째는 하찮은 일은 없다는 거다. 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빵을 굽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과 다르게 빵을 굽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일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일이든 굉장히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냥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내가 식당을 운영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운영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에 따라 같은 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찮다거나 내 수준에서 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의 가치를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축적과 발산을 이야기하고 싶다. 일을 하면 금방 효과가 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쌓고 인내하며 축적해야 발산이 되는데 너무 빠른 결과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다. 학교 공부도 똑같다. 하루 이틀 밤새워서 잘될 수는 없지 않나?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다.

Q 전략적 무능을 선택하라고 하셨다. 전략적 무능이란 무엇인가.

A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중요한 것만 잘하고 나머지 분야에는 일부러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코딩을 배우는 거라면 그걸 배우는 동안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다른 일에는 건 일부러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Q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커리어일 것이다.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직장으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첫 번째를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면 앞으로도 꼭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커리어를 밟게 될 거다. 마찬가지로 건설 회사에 들어간다면 건설업의 커리어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첫 회사가 어찌든 내 평생의 업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종을 깊이 있게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실력과 전문성을 나 스스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해본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좋겠다. 예전에는 졸업 후 평생 회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을 볼 때 비즈니스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각은 회사에 들어가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전략적 무능을 선택하세요” KT 신수정 부사장이 말한 것처럼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스스로 능력을 키워 좋은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정민규 수습기자 minque7@ajou.ac.kr